

# 生産管理 側面에서 본 中小企業의 適正規模化 支援施策 方案

— 扇風機 製造業을 中心으로 —

高 南 旭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企業規模의 實態分析
II. 適正規模의 定義와 策定方式	IV. 企業規模別 生産性 및 收益性 比較分析
1. 適正規模의 一般의 概念과 規制要因	1. 勞動 및 附加價直 生産性의 比較分析
2. 本研究에 있어서의 適正規模의 定義	2. 原價水準과 原價構成의 比較分析
3. 適正規模의 策定方式	3. 賣出額 利益率과 總資本利益率의 比較分析
가. 適正規模 判斷指標의 選定	V. 適正規模 判斷指標와 支援施策方案
나. 適正規模의 策定方式	

## I. 問題의 提起

本 研究은 中小企業의 育成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政策課題로 提起되고 있는 中小企業 規模의 適正化施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와 그 方向 提示에 目的이 있다.

첫째는 中小企業製品的 育成에 있어서 本 研究을 通하여 算定된 品目の 適正規模를 目標로 하여 中小企業의 効率的인 生産規模를 確保하고 經營合理化를 할 수 있도록 支援함으로써 中小企業의 大企業에 對한 國內市場 競爭力을 強化함과 同時에, 둘째로 本 研究을 通하여 算定된 品目の 適正規模를 基準으로 하여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領域를 區分하여 中小企業 領域에 對한 大企業의 侵透를 防止할 수 있는 効率的인 方案을 마련하고, 셋째로 適正規模面에서 나타난 中小企業의 特徵을 分析하여 中小企業 基本施策과 適正規模化 支援策을 마련함으로써 中小企業施策의 基本體系를 確立하는데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本 研究을 實施하였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適正規模에 關한 定立된 理論이 없고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論難이 繼續되고 있는 實情에서 本研究가 아무리 科學的이고 徹底한 研究와 根據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決코 그 結果가 完全無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試圖된 品目の 適正規模의 算定問題는 앞으로 계속 檢討補充 되어야 할 研究課題임을 分明히 밝혀 둔다.

## II. 適正規模의 定義와 策定方式

### 1. 適正規模의 一般의 概念과 規制要因

經濟循環過程에서 볼 때 生産活動을 主導하는 企業規模는 擴大傾向을 밟고 있으며 이것은 自由競爭原理 위에서 胚胎된 資本集中의 必要的產物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企業規模의 擴大가 반드시 有効競爭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點에서 企業規模의 適正化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企業規模를 擴大함으로써 生産費가 減감되고 高能率의 設備使用을 可能케하여 生産規模의 巨大化가 되더라도 그것이 設備規模의 擴大에 比例하는 資本生産性의 增大를 隨伴하지 못하는 이른바 限界資本生産性의 遞減現象은 資本의 効率的인 活用을 阻害시키고 結果의 으로는 原價上昇의 要因을 이루어 企業의 競爭基盤의 弱화를 招來시킬 것이라는 觀點에서 大企業의 絶對的인 優位性만을 強調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의 企業規模 가운데 어느 規模가 資本生産性의 遞減現象이 나타나지 않는 適正規模인가 하는 問題는 絶對的인 單一基準으로써 劃一的일 수는 없고 業種에 따라 또는 市場規模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을 갖는 適正規模問題는 特히 中小企業에 局限시켜 본다면 더욱 重要性을 띄고 있다. 即 企業이 처음에는 中小規模로 부터 出發하여 漸次로 擴大되어서 結局은 大規模企業으로 轉換되어 가는 이른바 企業規模의 上向稼動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마샬」의 見解에서 보면 지금은 小規模企業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大規模로 上向稼動되어 갈 것이므로 다만 時間(time lag)上的 問題일 뿐 適正規模의 問題가 그렇게 「크로즈·업」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J. Steindl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은 처음부터 中小企業으로써 存在하고 또한 大企業은 大企業대로 出發存續함으로써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에는 一種의 斷層이 形成되고 있다는 이른바 斷層說의 見解에서 보면 中小企業으로 밖에 存立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 企業으로 하여금 規模의 非適正性에 基因되는 非能率로 부터 그들을 解放시켜 그들 스스로의 成長의 存立基盤을 마련해 둘 수 있는 適正規模의 出發은 더욱 主要한 意義를 갖는다 하겠다.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에서 出發된 企業規模의 適正化問題를 擔當해 감에 있어서 우선 여기에서는 適正規模의 一般의 概念을 綜合해 보고자 한다.

#### (1) E. A. G. Robinson의 適正規模論

Robinson은 企業規模의 가장 効率的인 單位인 適正規模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適正規模企業이란 技術 및 組織能力의 現在條件下에서 單位當 平均生産費, 즉 長期에 걸쳐 支拂되는 모든 費用을 포함한 平均費用이 最低가 되는 企業의 規模” 라고 規定하고 있다. 위와 같은 意味를 갖는 企業의 適正規模를 決定하는 要因을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適正規模企業의 全 生産物을 充分히 흡수할 수 있는 市場이 있다고 假定한다면, 企業 單位의 最良의 規模를 決定하는 要因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主要範疇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 ① 技術的 要因
- ② 經營的 要因
- ③ 財務的 要因
- ④ 適正販賣單位를 促求하는 配給 Marketing의 要因
- ⑤ 景氣循環의 方面에서 最大의 存續力을 갖는 企業單位를 促求하는 위험 및 景氣變動의 要因策으로 나누고 있다.

## (2) A. Marshall의 代表的 理論.

企業規模의 擴大에 關한 A. Marshall의 理論은 가장 代表的인 理論으로 되고 있다.

A. Marshall 의하면 처음에 小規模로 出發하여 漸次的으로 企業規模의 巨大化를 實現해 간다는 企業의 上向稼動 (Upwards Movement) 을 前提로 하면서 森林속의 苗木이 大木으로 成長하는 것과 같다는 이른 바 森林比喩說을 展開하고 있다. 即 낡은 年老企業은 새로 成長하는 新生企業으로 代替되는 것인데 이경우에 新舊의 企業群이 끊임없이 交替되는 가운데 어떤 特別한 크기를 가진 正常的인 大企業을 想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代表的企業으로서의 正常的인 大企業이란 年老企業도 아니고 新生企業도 아니며 巨大한 企業도 아니다. 따라서 代表的企業의 規模는 産業의 規模가 擴大하면 이에 따라서 增大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새로운 販賣努力 없이도 새로운 販路市場이 存在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代表的企業은 大規模生産의 節約 및 市場擴張 難과의 均衡 내지 調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代表的企業은 주어진 市場規模의 範圍內에서 大規模生産의 節約을 享有할 수 있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規模生産의 利益이 그 生産物의 販路擴張에 所要되는 販路擴張費를 相殺하는 代表的 規模가 곧 適正規模가 될 것이며 이 規模를 超過하는 販賣擴張費가 大量生産의 利益을 上廻하게 되어 (주어진 市場規模를 超過하는 生産) 適正規模를 벗어나게 된다.

以上과 같은 Marshall의 代表的企業理論에서 보는 代表的規模가 곧 適正規模를 意味하는 바 이러한 Marshall의 理論은 小規模企業이 大規模企業으로 上向稼動하면서 規模의 利益(또는 規模의 經濟)을 享受할 수 있는 線(規模)까지 擴張되고 있다는 것은 中小企業成長

의 連續性(成長連續說)의 前提위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經營費用論의 觀點(Schmalenbach 等)에서 본 適正規模論.

獨逸의 經營費用研究의 源初의發端을 보면 Schmalenbach와 Melleroviz 等에 의하여 研究되었고 이들의 基本的인 論究의 課題는 企業의 操業도와 經營總費用과의 相關法則의 究明을 土臺로 企業의 適正規模를 模索하는 것이었다. 이 以外에도 여러가지의 議論이 分岐되고 있으나 接近의 方法이나 敘述의 表現에서 差異를 나타낼 뿐 本質的인 所論의 核心을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即 “長期的으로 規模의 效果가 最大로 發揮되는 經營單位의 크기”라 集約表現할 수 있다. 따라서 適正規模는 長期的인 市場競爭에서의 優位를 占하는(市場占據率의 漸進的인 擴大) 企業의 存立要件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適正規模에서의 製品單位當 平均費用이 낮아져야 함은 勿論이다. 여기에서 指適하고 있는 單位當平均費用의 最小化는 單純한 結果的 計算值의 意味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

첫째는 單位當平均費用이 그렇게 낮아지게 된 것은 規模의 經濟에 따라 나타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生産過程에서의 單位當平均費用은 最小化되는 規模이지만 市場競爭條件의 規模로 말미암아 製品單位當의 附加費用의 幅이 增大 된다면 規模의 利益이 實現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適正規模는 “完全競爭과 完全稼動을 前提로 하는 長期的으로 製品單位當 利幅을 最大로 하는(平均費用의 最小化) 工場의 生産能力 또는 固定設備의 크기”라고 定義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概念을 지닌 適正規模의 問題를 收益面에서 接近하느냐 費用面에서 接近하느냐에 따라 各各 相對的 最適規模(收益의 最適規模)와 絕對的 最適規模(費用의 最適規模)로 區分하고 있다. 相對的 最適規模란 市場條件을 考慮한 즉 需要와 供給의 兩面的 事情에 의하여 規定되는 最有利規模이며 絕對的 最適規模란 市場條件을 考慮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技術水準에 相應하는 最小平均費用이 保證될 때의 規模를 意味한다.

## 2. 本研究에 있어서의 適正規模의 定義

適正規模의 概念은 크게 두가지 見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即 그 하나는 J. Robinson의 見解로서 技術 및 經營能力等の 規模與件下에서 單位當 平均生産費가 最低가 되는 企業規模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 Marshall의 見解로서 주어진 市場規模의 範圍內에서 大規模生産의 利益을 享有할 수 있는 企業規模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두가지 見解는 서로 다른 相反된 見解인 것 같지만 單位當費用이 最小가 되므로써 最大의 利潤性이 實現될 수 있는 企業規模라는 事實에 共通點으로 發見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企業規模가 반드시 大規模企業만은 아니라는 事實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J. Robinson의 見解에서와 같이 單位當 平均生産費가 最低로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어진 市場規模에서 最大의 收益性を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適正規模라 定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適正規模論은 주어진 市場規模라는 前提와 같은 諸與件의 變化에 크게 制約을 받는 相對的인 概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企業의 適正規模는 時代, 나라 또는 對象業種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理展開 위에서 本研究에 適正規模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① 製品單位當 平均費用이 最低가 되므로써 最大의 利潤性이 實現될 수 있는 經營單位의 크기이며 ② 投下資本生産性的 規模의 擴大에 따라 增大해가는 過程에서 限界資本生産性的의 遞減現象이 나타나기 以前의 固定設備의 크기로 보았다.

本 研究에 있어서의 適正規模論議는 우리나라 모든 業種全般에 걸친 全規模의 企業에 對한 것이 아니고 中小企業性을 지닌 業種을 對象으로 한 것이어서 一般的인 經營規模의 크기를 適正規模의 判斷指標로는 보지 않았다.

適正規模의 問題는 論議되는 對象業種과 經濟諸量의 與件에 따라 具體化되는 것이어서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接近하였다. 即 製品單位當 平均費用이 最低가 되므로써 最大의 利潤性이 實現될 수 있는 經營單位의 크기라는 適正規模에 對한 一般論的 概念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意味에서의 最小限의 最適規模의 意義를 強調하고자 한다.

即 企業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大量生産의 法則에 따라) 平均費用이 減尠해가는 『最小限의 最適規模』 (Minimum Optimal Size) 는 이 規模를 超過하면서 (生産量이 擴大되면서) 平均費用이 變化되지 않는 『最大限의 最適規模』 (Maximum Optimal Size) 에 相對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適正規模란 絕對的인 意味에서의 最大效率規模가 아니라 餘他規模와 比較되는 이른바 相對的인 意味에서의 效率規模이기 때문이다.

### 3. 適正規模의 策定方法

#### 가. 適正規模判斷指標의 選定

適正規模를 判斷하기 위한 諸指標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提示될 수 있다.

- ① 生産性 (附加價值生産性, 勞動生産性)
- ② 收益性 (總資本利益率, 賣出額利益率)
- ③ 原價水準 (製造原價, 間接費負擔率)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附加價值生産성과 製造原價, 總資本利益率을 基準으로 하여 適正規模를 算出하고자 한다.

- ① 附加價值生産性은 對象品目の 附加價值總額을 從業員數로 나누어서  $\left( \frac{\text{附加價值}}{\text{從業員數}} \times 100 \right)$

算出되는 것으로 當該品目的 國民經濟的인 觀點에서의 經濟效率을 把握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間接的으로는 投入勞動의 效率性도 아울러 分析할 수 있다.

② 收益性指標로서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總資本利益率을 採擇하였다. 投下한 總資本에 對한 利益額의 크기를 意味하는 바 當該企業의 投下資本의 極大效率을 實現시키는 規模야말로 適正規模에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다.

③ 原價水準指標는 當該品目的 單位當原價水準을 算出함으로써 單位製品에 投下되는 費用을 意味한다.

製品의 同一性和 完全競爭, 工場의 完全稼働의 條件 위에서는 이러한 費用生産性指標는 『市場競爭力의 強度』를 가늠할 수 있는 基準이 되고 있다. 費用生産性을 나타내주는 原價水準은 반드시 規模의 效果에서만 結果된 것이 아니고 經營者의 能力, 從業員의 熟練度 操業度의 相違 比較約인 市場要因等의 複合要因의 相乘作用結果라는 點에서 原價의 變動을 規模의 效果라고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費用生産性自體가 規模의 適正化問題를 判斷하고 唯一한 指標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提示한 技術水準, 市場條件, 企業의 生産組織等은 急激히 變化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어진 것으로 假定한다면 費用生産性을 나타내주는 製造原價水準은 適正企業規模의 策定을 위한 基礎資料로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內容의 意義를 갖는 3가지基準以外에도 適正規模의 適用對象이 中小企業이라는 點에서 흔히 雇傭係數의 基準을 提示하기도 한다. 即 中小企業이 勞動集約的 産業類型이라는 點에서 開發途上國 一般에서 指摘되고 있는 過剩勞動力에의 就業效果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勞動人口를 雇傭할 수 있는 中小企業의 業種이나 規模가 存立의 妥當性을 主張할 수 있다고 한다. 勿論 雇傭效果의 面에서 中小企業이 갖는 特徵을 充分히 認定하지만 그것이 生産의 效率을 分析하는 經濟的 能率을 土臺로 適正規模問題를 取扱하는데 있어서는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되어야 할 基準이라고 생각된다.

#### 나. 適正規模의 策定方式

以上에서 提示한 3個指標를 本研究 對象品目에 對하여 各各 調査하고 이를 다시 各規模別(第1規模~第7規模)로 調査하여 各規模에 對한 3個指標의 綜合評點을 求하는 標準偏差(Standard Deviation)方式을 利用하였다. 各規模別 3個基準의 評點을 綜合하는 過程에서 各基準別數值의 性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單純한 合算만으로는 不合理하다는 問題가 發生한다. 即 어떤 基準의 數値는 그 絕對值가 相當히 큰 反面에 他基準은 그 絕對值가 相當히 적은 水準에서 上下하고 있다면 또 어떤 基準의 指標는 業種別로 變動의 振幅이 큰 反面, 他基準의 指標는 業種別로 그 振幅이 微小한 경우에는 이들 各 基準值의 單純한 合計值로서는 綜合判斷指標로 利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當該品目에 對하여 各規模別 3個基準別로 各各의 標準偏差(S. D.)를 算出하고 同標準偏差에 의하여 各基準別 平均偏差( $x_i - \bar{x}$ )를 除外함으로써 各規模別 基準值를 S. D. 單位로 換算한다. 이와같은 S. D. 單位算出作業을 通하여 各基準別 數值(絕對值)의 振幅이 修正되기 때문에 S. D. 單位算出 換算值의 合計值는 위에서 指適한 바 있는 絕對值의 『單純한 合算』을 通한 數值의 大小를 判定하는 것과는 달리 綜合判斷을 위한 評點值로서의 意義를 지니게 될 것이다. 研究對象品目에 對한 各規模別 綜合評點 P는 다음과 같은 式으로 表示할 수 있다.

$$P = \sum \frac{x - \bar{x}}{\sqrt{\frac{\sum(x - \bar{x})^2}{n}}}$$

$$= \sum \frac{x - \bar{x}}{\sigma}$$

各規模別로 3個基準值를 綜合하는 作業에 있어서는 費用生産性을 나타내는 原價水準值의 S. D. 單位 換算值는 (-)로 하였다. 왜냐하면 製品을 單位當 投入費用의 크기는 附加價值生産이나 總資本利益率의 크기와는 逆相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附加價值生産性이나 總資本利益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製品單位當 投入費用水準은 낮게 나타날 것이며 前者의 2個基準值가 낮으면 낮을수록 原價水準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各規模別 3個基準值의 綜合評點은 (+)值와 (-)值로 區分된다. 이때 (+)值는 當該業種이 當該基準에 있어서 平均水準 以上으로 評價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值는 平均水準以下로 評點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로서 絕對值가 클수록 適正規模에 가까운 것으로 判定하였다. 다시말하면 各規模別 3個基準值의 綜合評點이 (+)로서 가장 높은 數值가 되는 規模를 最大의 效率을 나타내는 規模로 判斷하고 適正規模로 策定하였다. 이때의 最大效率規模는 餘他的 規模에 比較되는 이른바 相對的 效率性指標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本研究에 있어서의 適正規模는 相對的인 意味에서의 높은 效率의 規模라고 할 것이다. 規模의 區分은 다음과 같이 7個規模로 하였다.

規 模 別	從 業 員 數
1 規模	5~ 9人
2 規模	10~ 19人
3 規模	20~ 49人
4 規模	50~ 99人
5 規模	100~199人
6 規模	200~499人
7 規模	500人 以上

適正規模의 問題가 諸規模間의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能率을 比較하여 가장 能率的인 規模의 策定에 主된 目的이 있으므로 規模 計測의 單位를 어떻게 잡느냐하는 問題는 適正規模의 判斷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即 多數의 規模計測單位를 規模別로 늘여놓고 그들의 能率을 平均의 方法으로 推定하고 이들 計數中에서 가장 커다란 能率

이 나타난 規模를 適正規模라고 말하는 것은 單純한 計數的인 結果에만 執着하기 쉽고 또 한 規模計測單位가 크면 클수록(規模區分의 數가 작으면 작을수록)變則的인 要因이 포괄 될 可能性이 더욱 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可能한 限 規模分析의 單位를 좁혀서 規模를 細分하는 것이 規模의 效率을 正確히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에서는 規模의 區分위에서 分析作業을 實施하였다.

### Ⅲ. 企業規模의 實態分析

電氣機器工業은 特히 高度의 技術과 巨大한 設備을 要하는데 扇風機는 電氣機器中에서 製品의 構造가 比較的 簡單하여 他電氣機器보다는 精密하지 않은 家庭用 電氣機器로서 1960年 以後 電源開發事業의 順調로운 進展과 함께 國內生産이 增大하고 있다. 扇風機는 現在 群小製作業體를 包含하여, 20個의 工場에서 組立및 製作되고 있는데 規模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人의 規模가 2個, 10~19人이 5個, 20~49人이 3個, 100~199人의 規模 2個業體로서 中小企業 製造業體는 12個業體로 分析되어 있으며 全體 同製品 製造業體의 60.0%를 차지하고 있다.

[ 表 1 ] 規模別 事業體數 單位: 業體

規 模 別	事業體數	構成比 (%)
中 小 企 業	5人~ 9人	2 10.0
	10人~ 19人	5 25.0
	20人~ 49人	3 15.0
	50人~ 99人	- -
	100人~ 199人	2 10.0
小 計	(12)	(60.0)
大 企 業	200人~499人	5 25.0
	500人以上	3 15.0
	小 計	(8)
合 計	20	100.0

資料: KID實態調査 (1971. 9.)

特히 經濟開發計劃의 進展과 함께 國民所得의 增大로 因한 生活向上으로 耐久財의 需要를 增大 시켰는데 扇風機는 急激한 需要增大를 보임으로써 施設과 技術의 向上으로 量産體制을 이루어 大企業의 進出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規模別로 보면 200~499人의 規模에서 5個, 500人以上이 3個業體로 分布되어 同製品製造業의 40.0%를 占하고 있다. 따라서 事業體數로는 60%가 中小規模이나 國民所得水準의 向上으로 需要가 크게 擴大 될 것으로 展望되어 大規模企業에로의 發展이 要望되는 業體라 할 수 있다.

### Ⅳ. 企業規模別 生産性 및 收益性 比較分析

勞動生産性指數를 [表2]에서 보면 中小規模 平均指數와 大規模 指數사이에는 2배에 가까운 隔差를 보여주고 있다. 即 中小企業平均 61.8에 比하여 大企業은 107.1을 나타내고



있다. 中小規模中에서는 10~19人과 20~49人 規模가 모두 中小企業 平均指數를 下廻하고 있는데 5~9人의 規模에서만이 80.6을 나타내고 있어서 中小規模 區間에서 가장 높은 勞動生産性 指數를 보여주고 있다.

附加價值 生産性水準에 있어서도 中小企業보다 大企業規模經營의 優位性이 나타나고 있는데 特히 그 隔差의 幅은 勞動生産性 水準에서 보다 더욱 顯著하다. 即 中小企業 平均 53.8에 對하여 大企業 平均은 108.5이므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規模別 隔差는 2倍以上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9人 規模에서 단이 99.6을 보이고 있을 뿐 餘他 中小規模業體에서는 平均水準을 下廻하거나 이와 비슷한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生産性水準의 資料를 土台로할 때 扇風機製造業은 規模의 擴大에 따라 生産性水準이 比例的으로 上昇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中小規模中에서도 一定規模에서 만 높은 效率을 나타내고 余他規模에서는 낮은 經濟效率을 보이고 있어 限界型的의 特徵을 나타내주고 있다.

扇風機의 單位當 製造原價水準을[表3]에서 보면 中小企業 平均水準은 7,500원이며(100~199人) 規模에서는 6,310원으로 가장 낮은 原價水準이어서 大企業의 6,750원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原價水準으로는 가장 낮은 規模(100~199人)의 原價構成上的 特徵을 보면 勞務費 構成比率이 20.2%이며 이것은 平均構成比率 25.5%보다 낮은 水準이다. 賣出額利益率을 [表4]에서 보면 20~49人 規模에서 18.51%를 보이고 있어 平均水準인 16.85%보다 높으나 大企業의 平均賣出額利益率 19.99%보다는 未達하고 있다 總資本利益率에 있어서는 中小企業 平均은 7.05%인데 大企業 平均은 11.57%이어서 大企業의 資本生産性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小規模内部에서 보면 100~199人 規模에서 7.48%를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規模의 增大에 따라 比例的으로 上昇하고 있음을 示顯하고 있다.

1. 勞動 및 附加價值生産性的 比較

[ 表 2 ] 單位：千圓

規模別	區 分	勞動生産性		附加價值生産性	
		生産性	隔 差	生産性	隔 差
中 小 企 業	5人~ 9人	1.163	80.6	694	99.6
	10人~ 19人	779	54.0	450	64.6
	20人~ 49人	557	38.6	202	29.0
	50人~ 99人	—	—	—	—
	100人~199人	1.013	70.2	407	58.4
	平 均	892	61.8	375	53.8
大企業 平均		1.545	107.1	756	108.5

資料：KID의 實態調查(1971. 9)에서 作成

2. 原價水準과 原價構成의 比較

[ 表 3 ] 單位：%

規模別	區 分	原材 料費	勞務費	工場 經費	製造原價 (千圓)
小 企 業	10人~ 19人	57.2	33.0	9.8	(8,580)
	20人~ 49人	71.9	23.2	4.9	(7,600)
	50人~ 99人	—	—	—	—
	100人~199人	76.3	20.2	3.5	(6,310)
		平 均	68.5	25.5	6.0
大企業 平均		79.4	16.5	4.1	(6,750)

資料：KID의 實態調查(1971. 9)에서 作成

※ ( ) 안의 金額은 單位當 製造原價임

3. 賣出額利益率과 總資本利益率의 比較  
[表 4] 單位: %

規模別	區分	賣出額利益率	總資本利益率
中	5人~ 9人	—	—
	10人~ 19人	16.43	6.40
小	20人~ 49人	18.51	7.26
	50人~ 99人	—	—
企	100人~199人	15.60	7.48
	平 均	16.85	7.05
大企業平均		19.99	11.57

資料: KID의 實態調查(1971.9)에서 作成

### V. 適正規模 判斷指標와 支援施策方案

扇風機製造業의 適正規模의 類型을 보면 規模가 增大할수록 相對的으로 높은 生産指數를 나타내고 있고 大企業으로 갈수록 높은 經濟效率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原價水準과 收益性指標를 綜合的으로 勘案한 綜合平點值로서의 S.D. 換算值를 [表5]에서 보면 100~199人 規模에서는 -0.0928인데 500人以上 規模에서는 10.5050을 보여

주고 있어서 大企業規模의 優位性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扇風機는 從業員 500人以上의 大規模 (資本規模는 275百萬元)를 適正規模로 判斷할 수 있다. 따라서 扇風機 製造를 大企業化型으로 誘導시켜 나가기 위한 支援對策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人 以下の 規模에서 各 區間別로 分散되어 있는 中小規模業體에 對한 企業規模擴大를 支援해야 할 것이다.

#### 適 正 規 模 判 斷 基 準

[表 5]

判斷基準 要素別	規模別	1	2	3	4	5	6	7	中小企 業平均	總平均
生 產 額	千圓	—	11,235	17,696	—	153,202	297,279	2,606,257	60,711	464,548
附加價值生産額	〃	—	5,544	5,840	—	57,009	132,017	1,040,352	22,798	188,402
從 業 員 數	人	—	14	33	—	157	276	1,591	68	318
勞 動 生 產 性	千圓	—	779	557	—	1,013	1,060	1,885	892	1,443
附加價值生産性	〃	—	450	202	—	407	552	899	375	697
製 造 原 價	〃	—	8.58	7.60	—	6.31	7.50	6.00	7.49	7.20
間接費 負擔率	%	—	16.94	17.08	—	16.16	14.25	12.44	16.73	15.37
賣出額 利益率	〃	—	16.43	18.51	—	15.60	17.46	22.51	16.85	18.10
總資本 利益率	〃	—	6.40	7.26	—	7.48	10.25	12.89	7.05	8.86
market share	〃	—	0.8	1.4	—	7.4	27.1	62.9	10.0	100.0
販賣代金 決済 期間	日	—	40	50	—	60	40	40	48	45
S. D. 換算值			-6.1001	-5.3810		-0.0928	1.0689	10.5050		
適正規模 (人)								500以上		
總資本規模(千圓)								275,000		

資料: KID의 實態調查 (1971. 9)에서 作成

그러나 企業規模를 擴大한다고 해서 劃一的인 綜合合併을 서두는 것이 아니라 小規模業體는 特定類型의 需要階層을 위한 專門「메이커」로 存立시킬 수 있는 可能性도 아울러 考慮해 넣으면서 企業合併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人以上의 小規模業體는 새로운 業種으로의 轉換을 促進시켜야 할 것이 展望된다. 셋째 國內需要規模는 原價節減과 國民所得水準向上으로 어느 程度까지는 擴大될 것으로 要望되나 技術的인 製品의 質的 向上과 新製品의 開發에 重點的인 支援이 要望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施設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施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 ① 大企業에 依한 小企業의 吸收 또는 合併의 推進
- ② 國際競爭規模에 未達하는 新規企業建設의 抑制
- ③ 既存施設의 擴大 및 施設近代의 支援
- ④ 同一水準인 中小企業間의 水平的合併 및 協業化의 支援
- ⑤ 零細企業의 業種轉換의 促進
- ⑥ 輸出市場擴大
- ⑦ 大企業에 依한 市場獨占, 販賣網의 교란 등 不當競爭의 防止